

# 다중 언어 처리의 관점에서 본 제3언어 습득

- 연구의 개관 및 전망 -

이 성 은 (서울대)

## I. 머리말

현대사회는 갈수록 다문화 사회의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간의 소통과 이해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신의 모국어 외 다른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 사회도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여러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점차 일반화된 현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렇게 복수의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다중 언어 습득 **Multilingualismus**이라고 말하는데<sup>1)</sup>, 이와 관련된 연구가 그동안 언어학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과거에 수행된 다중 언어 습득 연구는 대부분 모국어와 제2언어 습득과 관계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모국어 지식이 제2언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성을 중심으로 제2언어 습득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였다(이성은 2012 참고).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모국어와 제2언어뿐만 아니라 제3언어 습득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다중 언어 습득과정이 제2언어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3언어 혹은 그 이상의 언어를 추가로 습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모국어인 한국어와 제2언어로 영어를 습득하고, 제3언어로 영어 외에 또 다른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일반화되

---

1) 다중언어습득의 정의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는 Cenoz 2013 참고.

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독일어 습득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독일어 학습자들은 이미 제2언어로 영어를 상당 수준까지 이미 습득한 상태에서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독일어 습득은 이제 제2언어 습득이 아니라 제3언어 습득의 전형적인 예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독일어 습득을 제3언어 습득의 차원에서 연구한 경우가 드물었다. 일부 연구에서만 독일어를 제3언어의 차원으로 다루었을 뿐 대부분의 경우는 제2언어 습득 연구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했다. 더구나 다중 언어 습득의 입장에서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습득을 다룬 연구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시도가 시작되는 상황에 있다(예, 주소정 2012).

따라서 제3언어로서 독일어 습득을 다중 언어 습득의 차원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일어 습득 과정에 관여하는 모국어(한국어)와 제2언어(영어)의 영향성을 포함한 다양한 다중 언어 습득의 영향 요소들을 분석하여 독일어 습득 과정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를 촉발시킬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최근 10년 내에 수행된 제3언어 습득 연구를 다중 언어 습득 과정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를 통해 제3언어 습득 과정으로서의 독일어 습득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몇몇 연구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시도를 수행하였지만(Rothman 2013, de Angelice 2007, Cenoz 2013) 언어처리 과정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거나 구분하더라도 단순히 수행된 연구를 나열하는 차원에 머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언어처리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3언어 처리 연구를 분석하여 독일어 습득 연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다중 언어 습득에 관여하는 주요 요소들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3언어 습득에 대한 분석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최근 수행된 제3언어 처리연구를 음운처리, 어휘처리, 통사처리 과정으로 세분화시켜서 종합적으로 분석하

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통해 제3언어 습득 연구로서 독어학 연구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 II. 다중 언어 습득 모델

### II.1. 언어 간 영향성과 전이 현상

다중 언어 처리 모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이미 습득한 언어 지식과 새롭게 습득하는 언어 지식 간의 영향성이다. 이러한 언어 간 영향성과 관련하여 다중 언어 습득 연구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전이(Transfer) 현상이다. 전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이미 습득한 언어지식이 새로운 언어의 습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sup>2)</sup>. 이 개념은 다중 언어 습득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선행 언어 지식이 다중 언어 습득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미 다양한 다중 언어 연구들은 이전에 습득한 언어지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새롭게 습득하는 언어 습득 과정에 관여하고 있음을 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전이 현상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모국어가 제2언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모국어 지식이 제2언어 습득을 방해하는지(부정적 전이 negative transfer) 아니면 이를 촉진시키는지(긍정적 전이 positive transfer)를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예. Tokowicz, N., & MacWhinney 2005, Chen et al. 2007)<sup>3)</sup>.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전이현상을 제3언어습득 과정에서 연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모국어(이하 ‘L1’) 지식이나 제2언어(이하 ‘L2’) 지식이 제3언어(이하 ‘L3’)에 미치는 영향성을 연구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스페인 지역에서 수행되었

2)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이성은(2012:143-145) 참고.

3)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Saville-Troike 2006 참고.

는데, 예를 들면 Sanz(2000)는 카탈루냐어(L1)와 스페인어(L2)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3언어로서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스페인어(L1)만을 사용하는 학습자들과 비교하여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제3언어로서 영어를 습득하는 사람들과 제2언어로서 영어를 습득하는 사람들의 학습능력을 비교했는데,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보다 L3학습에 있어서 보다 높은 습득수준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Sanz(2000)는 이미 습득한 두 개의 언어가 한 가지 언어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Muñoz 2000).

본 연구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이 연구 사례는 L1 혹은 L2 지식이 L3 습득과정에 미치는 영향성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대표적인 예로 Jin(2009) 연구는 모국어 지식이 제3언어 습득에 중요한 요소로 관여하며 제2언어 지식이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V장 참조). 이와는 반대로 제2언어 지식이 제3언어 습득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예를 들어 Flynn, Foley & Vinnitskaya (2004)의 연구는 통사처리를 예로 제2언어인 러시아어 지식이 모국어인 카자흐어보다 제3언어인 영어 습득 과정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는 전이 현상의 관점에서 모국어 및 제2언어가 제3언어에 미치는 영향성을 제시하는 다양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분석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전이 현상이 언어 간의 유사성이나 언어처리의 유형에 따라 제3언어 습득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 II.2. 학습자 요소

다중 언어 습득 모델에서 고려되어야 할 두 번째 영향요소는 학습자 요소이다. 이 요소는 학습 능력이나 학습 환경처럼 언어 학습자와 관련된 요소들을 말한다. 이러한 요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학습자의 학습 수준이다. 다중 언어 습득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 수준에 따라서 언어 습득 과정이 상이하게 실현되는지 여부는 자주 논의된 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제3언어 습득 과

정에서 이미 습득한 제2언어의 학습수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예를 들어 Tremblay (2006) 연구는 독일어 제3언어 습득 과정에 이미 습득한 제2언어인 프랑스어의 학습수준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불어의 학습수준이 높을수록 독일어(제3언어) 습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4장 참조). 또한 학습시기도 다중 언어 습득에서 중요한 학습자 요소이다. 언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느냐에 따라 다중 언어 습득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린 나이에 제3언어로서 독일어를 배운 학습자와 장년의 나이에 독일어를 배운 학습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언어의 노출된 정도나 언어 사용지역의 거주 기간도 중요한 학습자 요소가 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Tremblay (2006) 연구는 동일한 학습수준을 갖는 언어 사용자라 하더라도 언어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제3언어 습득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학습자 요소에는 그 밖에 최근에 얼마나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학습자의 모국어가 언어 사회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쓰는 언어인지 아니면 소수의 사용자만 사용하는지 여부, 학습자의 교육 수준, 학습자의 사회적 환경, 학습자의 심리적 요인 등이 속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 요소는 다중 언어 습득 및 처리 연구에서 중요한 영향요소로 고려되어야한다<sup>4)</sup>.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수행과정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적절히 통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습자 요소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경우 학습자 요소가 연구결과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논의과정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게 되는데 특히 학습자의 학습수준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됨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 II.3. 인지 처리 양상

다중 언어 습득 모델에서 고려되어야할 세 번째 영향요소는 인지 처리 양

4)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De Angelis (2007: 19-40)참고.

상이다. 인지 처리 양상은 크게 비언어적 처리 양상과 언어적 처리 양상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비언어적 처리 양상은 다중 언어 습득과 관련된 비언어적 인지 처리 양상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중 언어 습득이 비언어적 인지 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성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통제 처리 기능<sup>5)</sup>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일련의 연구에서 다중 언어 습득의 인지적 이점들을 분석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Bialystok & Viswanathan (2009)의 연구는 다중 언어 학습자가 통제 처리 기능에 있어서 단일 언어 학습자보다 뛰어난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비언어적 인지 처리 양상은 제3언어 처리 과정을 주제로 삼고 있는 본 연구의 논의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본 연구 과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인지 처리 양상은 언어적 처리 양상이다. 언어적 처리 양상은 다중 언어 습득의 구체적인 대상 혹은 언어 처리 과정을 말한다. 여기에는 음운 처리, 어휘 처리, 통사 처리, 화용 처리 등 일반적인 언어 습득의 양상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각각의 언어 처리 과정은 상이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 언어 습득 과정이 각 언어 처리 과정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다중 언어 습득 연구는 이러한 언어적 처리 양상을 구분하여 수행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3언어 습득 과정을 언어적 처리 양상에 따라 음운 처리, 어휘 처리, 통사 처리로 구분하여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sup>6)</sup>

지금까지 제시한 세 가지 영향 요소는 다중 언어 습득 및 처리 연구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를 모형화 시키면 아래 그림1과 같다.

5)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이성은(2010a:145-153) 참고.

6) 화용 처리와 관련해서는 아직 소수의 연구(예. Jorda 2005)만이 수행된 관계로 본 연구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1. 다중 언어 습득 모델

그림 2. 언어 처리 양상별 제3언어 습득 모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중 언어 습득 모델을 토대로 제3언어 습득 과정 연구를 조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3언어 처리 양상을 음운처리, 어휘(형태)처리, 통사처리 과정으로 나누어 각각에서 나타나는 언어 간 영향성을 학습자 요소를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그림2).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서 독일어 습득 연구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 III. 음운 처리

#### III.1. 연구의 개관

음운 습득과정은 일반적으로 성인 학습자가 아동 학습자보다 습득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결정기 이후에 제3언어를 습득하는 성인 학습자의 경우 어휘 습득이나 문법 습득보다 음운 습득을 더 어려워하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된다. 이러한 특이성은 다중 언어 습득 연구에서 음운 처리 과정을 다각도로 연구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제3언어 습득에

서 나타나는 음운 습득 과정에 대해서는 최근 20~30년에서야 비로소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초기 관점은 제3언어 음운 습득과정에 모국어 지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Ringbom(1987)의 연구에서는 성인 학습자들의 제3언어 발화 강세를 분석하여 모국어의 특성이 제3언어의 습득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Llisterri & Poch-Olivé (1987)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 연구는 카탈란어 Catalan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카스티아어 Castilia를 제2언어로 습득하고 제3언어로 영어를 습득한 학습자 그룹과 제2언어로 영어만을 습득한 학습자 그룹이 영어의 모음을 발음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그룹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이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국어만이 제3언어의 음운 습득에 관여하고 제2언어의 영향은 거의 미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연구와 달리 이후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제2언어가 제3언어의 음운습득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Llama et al.(2007)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불어를 모국어로 하고 영어를 제2언어로 습득한 학습자가 제3언어로 스페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운 습득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제2언어 습득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무성 파열음의 성개시 시간 VOT(voice onset time)<sup>7)</sup>와 기식현상(aspiration)이다. 불어와 스페인어는 VOT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지만 영어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불어와 스페인어의 무성파열음은 기식이 없는 반면, 영어의 경우는 강세를 받거나 단어의 첫 부분에 실현될 경우 기식이 나타난다. Llama et al.(2007)은 이러한 특성을 응용하여 제3언어의 음운 습득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습자들은 제3언어인 스페인어 음운을 제2언어인 영어의 음운특성을 반영하여 기식이 포함된 무성 파열음으로 발음하는

7) 성개시 시간 VOT(voice onset time)는 파열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음성학적 현상으로 파열음의 조음에서 파열이 일어난 시점에서부터 다음에 오는 모음이 조음을 시작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유성 파열음의 VOT는 무성 파열음의 그것보다 짧게 실현되는 경향을 보인다.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개시 시간 VOT도 영어와 매우 유사했다. 이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모국어인 불어가 제3언어인 스페인어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습득한 제2언어 음운 지식을 제3언어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Llama et al.(2008)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3언어 음운 습득 과정에 제2언어 음운 지식이 강하게 관여한다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Tremblay(2007)은 영어 모국어 화자가 불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고 제3언어로 일본어 무성 파열음을 습득하는 과정을 연구했다. 일반적으로 무성 파열음이 있어서 일본어의 기식 정도는 모국어인 영어와 제2언어인 불어의 중간에 해당한다. Tremblay(2007)은 이를 응용하여 제3언어의 음운 처리에 미치는 모국어와 제2언어의 영향성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일본인 학습자들은 일본어를 제2언어인 불어와 유사하게 발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도 Llama et al.(2008)과 마찬가지로 제3언어의 처리과정에 제2언어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음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3언어 습득에 제2언어의 영향성은 유럽어권의 언어들을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Gut(2010)의 연구는 모음의 발음과 발화의 리듬을 분석하여 헝가리어, 폴란드어, 러시아 모국어 화자들이 제2언어로 영어를 습득하고 제3언어로 독일어를 습득하는 경우와 제2언어로 독일어를 습득하고 제3언어로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모국어의 영향은 미비했으며 제2언어가 제3언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에서 제2언어가 제3언어의 음운 습득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제3언어 학습자들은 그 습득수준이 낮았다. 따라서 제3언어의 습득 수준이 높아질 경우 이러한 전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로 Williams & Hammarberg (1998)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독일어를 제2언어로 학습한 영어 모국어화자가 제3언어로 스웨덴어 발음을 학습하는 과정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피험자가 학습초기에 스웨덴어 텍스트를 읽도록 하고 이를 녹음해 두고 스웨덴에 체류한지 1년이 지난 뒤 다시 한 번 스웨덴어 텍스트를 읽도록 하고 이를 녹음하였다. 그리고 이 녹음한 텍스트를 다른 스웨덴어 모국어 화자에게 들려주고 녹음한 학습자의 발음이 어느 나라 언어처럼 들리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학습초기에는 제2언어인 독일어에 가까운 발음으로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년 뒤에 녹음한 자료는 오히려 모국어 영어에 가깝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제3언어의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제2언어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모국어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사한 현상이 최근 수행된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Wrembel(2010)은 독일어를 제2언어로 학습한 폴란드어 모국어 화자가 제3언어로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3언어의 학습 수준에 따라서 피험자를 상위 수준 그룹과 하위 수준 그룹으로 나누어 테스트를 수행하여 제3언어의 학습수준에 따른 모국어 혹은 제2언어의 영향성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위 Williams & Hammarberg (1998)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피험자가 영어텍스트를 읽도록 하고, 이를 녹음하여 평가단을 통해 녹음된 소리가 어느 언어의 모국어 화자에 가까운지를 판정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제3언어 습득 수준이 낮은 그룹은 절반 이상이 제2언어인 독일어의 모국어 화자로 잘못 인식되었다. 이에 반에 습득수준이 높은 그룹은 폴란드어 모국어 화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제3언어의 습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제3언어 음운 처리에 대한 제2언어의 영향성이 줄고, 모국어의 영향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III.2. 선행 연구의 한계점 및 새로운 연구 가능성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 보면 최근 수행된 제3언어 음운 습득에서는 제2언어의 영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제3언어의 습득 수준에 따라 제2언어의 영향성이 상이한 양상을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제3언어 음운 습득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우선 학습자 요소의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학습자의 제2언어 습득수준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 제3언어의 습득 수준을 고려한 연구들은 보고되었지만 제2언어의 습득수준이 제3언어 음운처리에 미치는 영향성을 연구한 예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앞서 II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제2언어 습득 수준은 제3언어 습득 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언어의 습득 수준과 함께 제2언어 습득 수준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제3언어 음운 습득 및 처리과정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주제가 지나치게 언어 산출에 치우쳐 있다(아래 표 참고). 본 연구에서 조사한 8개 연구 중에서 1개의 연구만이 음운 이해 과정을 다루고 있다. 보다 통합적인 제3언어 음운 처리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음운 이해의 측면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서 한국어 모국어화자의 독일어 음운 습득 과정을 제3언어 습득의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테스트	모국어	제2언어	제3언어
Llisterri & Poch-Olivé(1987)	음운 산출	카탈루냐어	카스티아어	영어
Tremblay(2007)	음운 산출	영어	불어	일본어
Wrembel(2010)	음운 산출	폴란드어	독어	영어
Llama et al.(2010)	음운 산출	영어/불어	불어/영어	스페인어
Gut(2010)	음운 산출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어	영어/독어	독어/영어
Williams & Hammarberg (1998)	음운 산출	영어	독어	스웨덴어
Hiroimi(2013)	음운이해	한국어	영어	일본어
Pyun (2005)	음운산출	한국어	영어	스웨덴어

[표 1] 제3언어 음운 습득 연구

한편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 기존 연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제3언어 습득자들에게 발화를 시켜보고 이를 녹음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방식에는 피험자 개인의 특수성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더구나 많은 연구에서 소수의 학습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신경언어학적 연구방법론을 제3언어 음운 습득 연구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뇌파측정법(EEG)처럼 실시간으로 제3언어 학습자의 음운 처리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론은 기존의 언어 산출위주로 진행된 연구가 갖는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sup>8)</sup>. 여기에 대해서는 V.1장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다.

## IV. 어휘 처리

### IV.1. 어휘 처리 연구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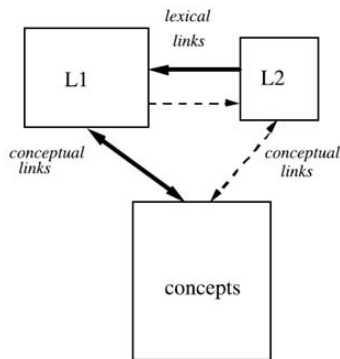
제3언어 습득의 어휘 처리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구는 세 가지 언어를 습득한 학습자와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한 학습자의 어휘 처리 과정을 비교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언어 전환 비용 Code switching cost<sup>9)</sup>’이 중심주제가 되었다. 즉 제3언어 사용자가 어휘 지식을 사용할 때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이 제2언어 사용자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가 중요 연구 주제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론은 단어 이름 말하기 테스트였다. 이 테스트에서는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의 글자 색에 따라 언어 전환을 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단어에 해당하는 그림을 보

8)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성은(2010) 참고

9) Code switching cost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인지작용에서 다른 인지 작용으로 전환할 때 소요되는 인지적 자원의 양을 말한다.

여주고 빨간색은 모국어, 파란색은 제2언어, 녹색은 제3언어의 단어로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2언어로 영어와 제3언어로 독일어를 습득한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경우는 책상 그림을 주고 빨간색 그림은 ‘책상’, 파란색 그림은 ‘table’ 녹색 그림은 ‘Tisch’를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피험자의 반응속도를 각각 측정하고 비교함으로써 각 언어로 전환될 때 인지속도를 분석하였다. 일련의 연구 결과는 세 가지 언어 사용자가 두 가지 언어 사용자보다 단어 전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 결과는 제3언어 어휘 처리가 제2언어 어휘처리과정과 인지 처리 과정이 서로 다르다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sup>10)</sup>.

그런데 이러한 언어 간의 전환 과정의 분석만으로는 제3언어 어휘 처리과정을 적절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에서 언어지식간의 전이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언어지식 간의 전환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세 가지 언어를 습득한 학습자의 어휘 처리 과정이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한 학습자의 어휘 처리과정과 상이한 것은 어휘 지식 사이에 나타나는 전이 현상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RHM모형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모델은 모국어 지식이 제2언어의 어휘 지식 처리에 관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아래 그림은 RHM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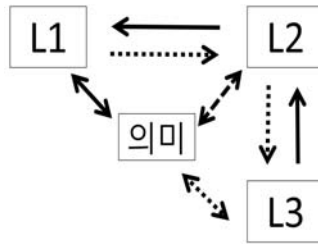


[그림3] RHM 모델(Kroll & Stewart 1994:154)

10) Rothman, Cabrelli & de Bot 2013: 382-383 참고.

[그림3]은 RHM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제2언어 어휘지식(L2)은 모국어(L1)를 거쳐 의미에 도달하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 단어 'apple'을 인지할 때 한국어 단어 '사과'를 통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제2언어 습득 수준이 초기 단계에 있을 때는 제2언어 어휘의 인출과정이 모국어를 통해서 수행된다. 그러다가 제2언어 습득 수준이 모국어와 비슷한 정도로 향상되면 제2언어 어휘가 직접 의미에 접속하는 과정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RHM 모델과 관련하여 제3언어 어휘 처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제3언어 어휘가 제2언어 혹은 모국어를 거쳐 의미에 도달한다면 단어 이름 대기 과제에서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참고 [그림4]). 이러한 지체현상으로 인해 제3언어의 어휘처리가 제2언어의 어휘처리와는 상이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림4] 제3언어 어휘 처리를 적용한 RHM 모델

이와 관련하여 Dewaele (1998)의 연구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네덜란드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제3언어 어휘 습득과정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피험자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제2언어로 불어를 습득하고 제3언어로 영어를 학습하는 피험자였고, 두 번째 그룹은 제2언어로 영어를 습득하고 제3언어로 불어를 학습하는 피험자였다. 두 그룹을 대상으로 말하기 테스트를 수행하여 제2언어 혹은 제3언어의 어휘가 대체

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같은 불어 단어를 제2언어의 경우는 모국어인 네덜란드 단어로, 제3언어의 경우는 제2언어 단어로 대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모국어가 직접 제3언어의 어휘처리에 관여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Dewaele (1998)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휘 간 전이는 최근 습득한 순서로 일어난다고 해석하였다. 즉 모국어 어휘지식은 제2언어 어휘 습득에 관여하고, 제2언어 어휘 지식은 제3언어 지식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그림4]에서 제시된 수정된 RHM모델에 적용해 보면 제3언어의 어휘 처리가 제2언어를 거쳐서 진행되거나 혹은 제2언어를 거치고 모국어를 거쳐 의미에 접속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Filatova, K.(2010)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연구도 학습자들에게 제3언어로 말하는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하고, 말하기 과정에서 단어가 대체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2언어로 영어를 습득한 러시아어 모국어 화자가 제3언어로 스페인어를 학습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테스트 결과는 자신의 모국어와 유사한 발음을 갖는 제3언어 단어조차도 제2언어인 영어 단어로 대체함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구체적인 예로 스페인어 “arquitectura”는 영어의 “architecture”보다 러시아어의 “apxymeKmypa [arhitektūra]”와 더 발음이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이 스페인 단어를 자주 제2언어인 영어 단어로 대체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제2언어의 지식이 제3언어 어휘 습득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어 제3언어 어휘 습득을 연구한 예에서도 이러한 제2언어의 영향성이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Wei (2006)은 영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고 독일어를 제3언어로 학습한 두 명의 중국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독일어로 말하기 과제를 수행하고 말실수를 분석했다. 다음은 두 사람이 범한 대표적인 말실수의 예이다.

(1)\*Sie anrufte ihn einen Lügner.

(Sie schimpfte ihn einen Lügner.)

위의 예에서 독일어 제3언어 학습자는 “schimpfte”를 “anrufte”로 대체하여 말하고 있다. 이는 영어 단어“call”을 연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독일어 단어로 잘못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Wei (2006)은 제3언어 어휘 처리에서 제2언어 어휘가 의미 인출을 위한 중간 단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다른 예로 Tremblay(2006)의 연구에서는 독일어 제3어휘 습득을 제2언어의 습득 수준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 연구는 불어를 제2언어로 습득한 영어 모국어화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는데, 제2언어인 불어의 습득수준과 노출 정도에 따라 피험자를 세 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피험자 그룹을 제2언어의 습득 수준에 따라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나누고, 상위 그룹은 제2언어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다시 노출 상위 그룹과 노출 하위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세 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제3언어인 독일어 말하기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테스트 과정은 만화 그림이 제시되고 피험자는 그 내용을 제3언어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험자의 발화는 녹음되었고 테스트 후에 발화에서 나타나는 말실수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모국어인 영향을 받은 피험자 “Ein ‘Mann arbeitet in ein ‘sawmill’(Sägemühle)”처럼 문장의 일부를 영어단어로 대체시켰다. 또한 불어에 영향을 받은 피험자는 “die Person ‘qui’ (trägt)”.처럼 불어로 독일어 단어를 대체하였다. 이 연구의 테스트 결과는 습득수준이 올라갈수록 모국어의 전이가 감소하고 제2언어 전이 현상은 강해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상위 그룹에서도 노출정도가 높은 피험자가 그렇지 못한 피험자보다 제2언어로부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기존 연구의 결과와 종합해서 해석하면 제2언어의 제3언어 어휘 처리에 대한 영향성은 어느 정도 이상의 습득수준이 확보될 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IV.2. 선행 연구의 한계점 및 새로운 연구 가능성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최근 수행된 제3언어 어휘 습득 연구들은 제2언어 지식의 관여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이 갖는 몇 가지 한계점 때문에 아직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에 는 무리가 있다.

우선 언어 간 영향성의 측면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은 제3언어 어휘 습득에 영향을 주는 모국어 혹은 제2언어 지식의 유형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점이다. 특히 언어 간 어휘적 유사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특성은 제3언어 단어의 습득 및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볼 수 있다. 물론 앞서 살펴본 Filatova, K.(2010)의 연구는 언어 간의 유사성과 상관없이 제2언어 어휘가 제3언어 어휘 습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모든 제3언어 어휘 습득과정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2언어 어휘 습득 연구에서는 모국어와 유사한 형태의 단어가 그렇지 않은 단어보다 제2언어 어휘 습득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습득되고 처리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jkstra et al. 2010). 이러한 점을 제3언어 어휘습득에 적용한다면 제2언어 어휘와 유사한 제3언어 어휘가 그렇지 않은 어휘보다 효과적으로 습득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제3언어 어휘 습득 연구에서 언어 간의 유사성처럼 언어 지식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 요소의 관점에서 기존 연구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 제2언어 습득 수준을 제3언어 어휘 처리 연구에서 고려한 경우(예, Tremblay 2006)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습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점은 기존 연구의 또 다른 한계가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습득 수준은 다언어 습득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제2언어의 습득 수준에 따라 제3언어 어휘 습득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밝혀주지 못한 제3언어 어휘 습득의 새로운 측면을 규명하

는 길이 될 것이다.

기존 연구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소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점은 음운 습득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음운 습득과 마찬가지로 언어 산출 과정에 치우친 연구를 수행했다. 제3언어 어휘 처리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서 어휘를 인출해서 발화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어휘를 듣고 이를 이해하는 과정도 함께 연구될 필요가 있다(예. 주소정 2012).

마지막으로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기존 제3언어 어휘 습득 연구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연구방법은 말하기 과제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말실수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말실수는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말실수를 유형화시킬 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해석이 연구결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론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V.2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V. 통사 처리

### V.1. 연구의 개관

제3언어 통사 처리는 제3언어 습득 연구에서 그동안 가장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 분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는 크게 4가지 관점으로 연구의 방향성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모국어 전이 L1 transfer, 누적 촉진 모델 Cumulative Enhancement Model, 제2언어 전이 L2 state Factor, 언어 유형 우선 모델 Typological Primacy Model이 속한다. 다음에서 각 관점에 따라 제3언어 습득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 모국어 전이 L1 transfer의 관점을 따르는 연구들은 제2언어 지식이 제3언어 통사지식 습득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며, 모국어 지식으로부터의 전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Jin (2009)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목적어를 생략 가능한 언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의 통사적 특성을 활용하여 제3언어 통사 습득 과정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모국어로 중국어, 제2언어와 제3언어로 영어와 노르웨이어를 대상으로 삼았는데, 모국어인 중국어는 목적어 생략이 가능하지만 제2언어와 제3언어인 영어와 노르웨이어는 목적어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문법 테스트를 수행하고, 제2언어와 제3언어의 통사 지식을 테스트 했다. 영어 문장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은 예문(2)을 피험자에게 제시했고 우선 문장이 틀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틀렸으면 이를 수정하도록 했다.

(2) (a) 유형1: 주절 목적어 생략

Mary's bike had gone wrong. I am going to repair for her tomorrow.

(b) 유형2: 종속적 목적어 생략

Mary lost her bike last week, but John said the police had found for her.

이 테스트의 분석 결과는 제2언어인 영어의 경우 피험자들이 무리 없이 틀린 것을 찾아내고 수정했지만 제3언어인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함을 확인했다. 만약 제2언어 지식이 제3언어의 통사 습득 과정에 관여한다면 제2언어에서 무리 없이 수행되는 통사처리가 제3언어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위 테스트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Jin (2009)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국어가 제2언어보다 제3언어의 통사 처리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를 제2언어로 습득한 타이 Thai 어 모국어 화자의 중국어 제3언어 통사 습득 과정을 연구한 Na Ronong & Leung(2009)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모국어(타이어)와 제3언어(중국어)가 통사적으로 유사했는데, 제2언어인 영어 문법 지식이 제3언어인 중국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고, 모국

어 문법 지식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제3언어 통사 처리에 대한 모국어 처리 중심의 관점은 다른 연구들에 의해서 반박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Flynn, Foley & Vinnitskaya (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제2언어로 러시아어를 습득하고 제3언어로 영어를 습득하는 카자흐어 모국어 화자들이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절을 처리하는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아래 예문(3)에서 알 수 있듯이 모국어인 카자흐어에서는 관계절이 선행사의 왼쪽에 위치하는 반면 제2언어와 제3언어인 러시아어와 영어는 오른쪽에 위치한다.

(3) a. 카자흐어

[Sut- isken ] kyz bolmege kirdi( '[ ]'부분이 관계절)

milk-ACC drink-PART girl-NOM room-dat enter-past

'(A/the) girl who drank (the) milk entered (a/the) room'(영어번역)

b. 러시아어

Professor [ kotory priglasil lektora] predstavil vraca( '[ ]'부분이 관계절)

professor-NOM who invite-PAST speaker-ACC introduce-PA doctor-ACC

'The professor who invited the speaker introduced the doctor'.(영어번역)

(Flynn, Foley & Vinnitskaya 2004: 10)

이 연구의 테스트 방법은 '즉시 따라 말하기 테스트 Elicited imitation test' 였는데, 이 테스트는 피험자에게 위와 같은 문장을 들려주고 바로 이어서 최대한 정확하게 따라 말하도록 하는 테스트였다. 테스트 결과는 영어 제3언어 습득자들이 영어 문장의 관계절을 오른쪽에 무리 없이 부착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국어 지식은 제3언어 통사 습득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제2언어 문법 지식이 제3언어 통사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lynn & Vinnitskaya(2004)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 언어 지식은 제3언어 통사 처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만 작용한다는 누적 촉진 모델 Cumulative Enhancement Model for Language(이하 'CEM')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제3언어 통사 처리는 모국어 지식 또는 제2언어 지식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습득한 통사 지식이 제3언어 통사 지식 습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이 모델에서는 선행 지식이 부정적인 전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제3언어 통사 습득에 기여하거나 아니면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CEM 모델을 위 실험결과에 적용하면 모국어(카자흐어) 지식은 제3언어(영어)습득을 촉진하지도 저해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CEM 모델이 부정적인 전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의문이 제시될 수 있다. 만약 제2언어의 영향성이 너무 커서 모국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를 상쇄시키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모국어지식이 중립적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Bardel & Falk(2007) 연구는 이러한 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경험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주절에서 동사가 두 번째 위치에 오는 언어(예. 스웨덴어, 네덜란드어 이하 'V2')와 그렇지 않은 언어(예. 알바니아어, 헝가리어 이하 'Non-V2')에서 나타나는 동사의 부정어 위치를 통사 습득의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서는 V2어를 제3언어로 습득하는 학습자를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 그룹은 Non-V2어를 모국어로, V2어를 제2언어로 습득한 학습자이고 두 번째는 V2어를 모국어로, Non-V2어를 제2언어로 습득한 그룹이었다. 두 개의 그룹에 대해서 V2어 제3언어에 대한 문장 산출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 번째 그룹이 두 번째 그룹보다 제3언어 통사 처리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Bardel & Falk(2007)은 이러한 결과를 제2언어 지식이 제3언어 문법지식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했다. 첫 번째 그룹의 제3언어 통사지식을 보다 잘 습득한 것은 제2언어로 V2어를 습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그룹의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은 V2 모국어 지식이 제3언어 V2 통사 지식을 습득하는데 별다른 영향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CEM 모델을 반박하게 되는데 만약 선행지식이 제3언어 통사 지식 습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두 번째 그룹에서도 V2 모국어 지식이 V2 제3언어 습득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하기 때문이다. Bardel &

Falk (2007)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2언어 지식이 제3언어의 통사 습득에 중요한 요소로 관여한다는 ‘제2언어 전이 L2 state Factor’ 관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제2언어 전이는 Jaensch(2009)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영어를 제2언어로 습득한 일본어 모국어 화자들이 제3언어로 독일어 통사 지식을 처리하는 과정을 아래에 제시된 예문(4)처럼 cloze 테스트를 통해 연구했다.

(4) Bitte wählen Sie von den folgenden Endungen:-e -en -em -er -es

Das BELIEBT\_Lokal ist in einer BREIT\_Allee. In dieser  
BEKANNT\_Gegend findet man EXCLUSIV\_Läden  
wie Gucci und Dior.

(Jaensch 2009:127)

이 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제3언어 학습자를 제2언어 습득 수준에 따라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그룹으로 나누어서 테스트를 수행한 것이었다. 테스트 결과 제2언어의 습득 수준이 높을수록 제3언어 통사처리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2언어 습득 수준이 제3언어 통사 습득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2언어 전이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세 가지 관점과 더불어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또 다른 관점은 습득 언어 간의 유형학적 유사성을 제3언어 통사 습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영향요소로 보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Rothman(2010)의 연구를 통해서 제시되었는데, 이 연구는 영어, 스페인어, 브라질 포르투갈어(이하 BP)에서 나타나는 어순을 통사 처리 대상으로 삼았다. 스페인어와 BP어는 유형학적으로 볼 때 영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로 가까운 언어이다. 그런데 의문문의 어순에 대해서는 영어와 BP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영어와 BP는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어순이 주어-동사-목적어 순으로 어순이 고정되어 있는 편이지만, 스페인어는 어휘 동사 *lexical verb*를 포함하는 의문문에서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Rothman & Halloran 2013: 59).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통사 현상에 있어서는 BP어가 영어와 유사하고 스페인어와는 차이점을 나타낸다. Rothman(2010)은 이러한 점을 응용하여 피험자 그룹을 둘로 나누어 BP어 통사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모국어로 영어를, 제2언어로 스페인어를 습득한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모국어로 스페인어를, 제2언어로 영어를 습득한 그룹이었다. 이 실험에서 피험자의 제2언어 습득 수준은 두 그룹 모두 상위 등급에 속했다. 실험결과, 두 그룹 모두 제3언어의 통사 처리 과정이 스페인어 처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2언어 전이를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 제2언어 지식이 보다 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스페인어를 제2언어로 습득한 첫 번째 그룹이 제3언어 통사 처리 능력이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이 실험의 결과는 CEM 모델을 부정한다. 왜냐하면 제3언어와 유사한 영어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언어 유형적으로 유사한 스페인어 지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Rothman(2010)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 유형 우선 모델 *Typological Primacy Model*(이하 'TPM')을 제시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제3언어와 언어 유형적으로 유사한 선행 언어 지식이 제3언어 통사 습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TPM 모델 연구의 또 다른 예로 Foote(200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완료 시제를 문법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로만어와 영어가 갖는 차이점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서는 로만어(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제3언어로 습득한 피험자들을 두 개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영어를 모국어로, 로만어를 제2언어로 습득한 그룹이고, 두 번째는 로만어를 모국어로, 영어를 제2언어로 습득한 그룹이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피험자들에게 완료시제에 대한 해석 테스트를 수행하여 제3언어인 로만어에 대한 통사 처리 능력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두 그룹 모두 제3언어의 시제에 대한 해석을 무리 없이 수행하였고, 그룹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2언어와 상관없이 언어적 유사성에 따라 선행지식이 제3언어 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제2언어 지식이 보다 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로마어를 제2언어로 습득한 첫 번째 그룹은 로마어 제3언어 통사 처리 능력이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언어의 유형학적 유사성이 제3언어 통사 처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3언어 통사 습득의 네 가지 관점 중에서 어느 관점이 타당한지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종합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V.2. 선행 연구의 한계점 및 새로운 연구 가능성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3언어 통사 습득 연구는 음운 습득이나 어휘 습득보다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연구가 많이 진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언어의 습득 수준이 제3언어 처리에 반영되었고(예. Jaensch 2009) 언어 간 유사성이 중요한 관점으로 수용되었다(참고 TPM 모델). 그리고 언어 산출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 이해 연구도 상당수 수행되어 산출과 이해 과정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제3언어 통사 습득 연구에서는 동양어권 모국어 화자들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서구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제3언어 학습자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독어학 연구에서 제3언어 통사처리 연구를 수행한다면 이러한 국제 연구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음운 습득이나 어휘 습득과 마찬가지로 통사처리에서도 연구 방법론적인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말하기 테스트를 통해 말실수를 확인하거나 문법테스트처럼 설문을 통한 평가법이 방법



론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방법론은 언어 사용자가 언어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언어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온라인 측정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반응시간 측정법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제3언어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응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각 언어에 대한 피험자의 인지속도를 측정하여 제3언어 습득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언어학 연구에 적극 도입되고 있는 신경언어학적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다른 외부요소를 배제하고 언어학습자의 두뇌에서 진행되는 언어처리 과정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이성은 2010b 참고). 뿐만 아니라 언어 습득 전후에 나타나는 인지처리상의 미세한 변화도 측정가능하다. 예를 들어 McLaughin, Osterhout & Albert (2004)연구는 뇌파측정법(EEG)<sup>11)</sup>을 활용하여 제2언어 습득자의 인지반응을 9개월에 걸쳐 측정했고, 이를 통해 습득이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제2언어 지식의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뇌영상술을 제3언어 습득 연구에 도입한다면 언어 습득 후에 나타나는 미세한 인지변화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지식 간의 영향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VI.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제3언어 습득 과정을 음운 습득, 어휘 습득, 통사습득 으로 나누어 개관해 보고 연구의 한계성과 새로운 연구 가능성을 재고해 보았다. 종합해 볼 때 제3언어의 음운 습득 및 어휘 습득과정에서 제2언어 지식이 제3언어에 미치는 영향성이 전반적으로 확인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통사 처리에서는 선행지식의 영향성이 크게 네 가지 견해

11)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이성은(2010b:169-172) 참고.

를 중심으로 분석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나타났는데, 우선 언어 지식 간 영향성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않았고, 학습자 요소 중에서 제2언어 지식 혹은 제3언어 지식의 습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를 수행한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유럽권의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제3언어 습득자의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시아권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언어 사용자의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법론의 측면에서 말하기 테스트를 통한 말실수 분석처럼 피험자의 개인차나 연구자의 주관의 분석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많이 적용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인 독일어 제3언어 습득 과정에 대한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수행되지 않은 연구주제에 대한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 독일어 학습과정에서 모국어 지식과 제2언어인 영어 지식이 독일어 학습 과정에 미치는 영향성을 언어 처리 양상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면 기존 연구에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여 제3언어 습득 및 처리 과정에 설득력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가 안고 있는 연구방법론상의 문제점들을, 뇌영상술과 같은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3언어 습득과정에 적용하여 극복할 수 있다면 이는 독일어 제3언어 습득 연구가 이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이성은: 간접화행의 인지적 이해모델. 독일어문화권연구 19집, 2010a, 133-159.
- 이성은: 독일어 외국어 학습자의 fast mapping 능력에 대한 신경언어학적 연구. 독일문학 113집, 2010b, 167-190.
- 이성은: 제2언어습득에 대한 신경언어학적 고찰. 독일어문화권연구 21집, 2012, 127-157.
- 주소경: 영어 학습이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어휘 영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 Bardel, C., & Falk, Y.: The role of the second language in third language acquisition: the case of Germanic syntax. *Second Language Research*, 23(4), 2007, 459-484.
- Bialystok, E. & Viswanathan, M.: Components of executive control with advantages for bilingual children in two cultures. *Cognition*, 112, 2009, 494-500.
- Cenoz J.: Defining Multilingualism.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3, 2013, 3-18.
- Cenoz, J.: The additive effect of bilingualism on third language acquisition: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7, 2003, 71-87.
- Chen, L., Shu, H., Liu, Y., Zhao, J. & Li, P.: ERP signatures of subject-verb agreement in L2 learning.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10, 2007, 161-74.
- De Angelis, G.: 『Third or additional Language acquisition』. Multilingual Matters Ltd, Clevedon 2007.
- Dewaele, J.M.: Lexical inventions: French interlanguage as L2 versus L3. *Applied Linguistics* 19(4), 1998, 471-490.
- Dijkstra, T., Miwa, K., Brummelhuis, B., Sappelli, M. & Baayen, R. H.: How cross-language similarity and task demands affect cognate recognitio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62, 2010, 284-301.
- Eve Higby, E., Kim J. & Obler, L.K.: Multilingualism and the Brain. *Annual*

-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3, 2013, 68-101.
- Filatova, K.: Third language acquisition, macrocategories and synonymy in Pütz, M & Sicola, L.: 『Cognitive Processing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inside the learner's mind』, John Benjamins Pub.,Amsterdam 2009.
- Flynn, S., Foley, C. & Vinnitskaya, I.: The Cumulative-Enhancement Model for Language Acquisition: Comparing Adults' and Children's Patterns of Development in First, Second and Third Languag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1:1, 2004, 3-16.
- Foot R.: Transfer in L3 Acquisition: The Role of Typology. In Leung, Y.I.: 『Third language acquisition and universal grammar』. Multilingual Matters, Clevedon 2009.
- Gut, U.: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L3 phonological acqui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7:1, 2010, 19-38.
- Hiroimi, O.: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Third Language Perception: L2 and L3 Perception of Japanese Contrasts. Dissertation, University Libraries, University of Arizona 2013.
- Jaensch, C.: L3 Enhanced Feature Sensitivity as a Result of Higher Proficiency in the L2. In Leung, Y.I.: 『Third language acquisition and universal grammar』. Multilingual Matters, Clevedon 2009.
- Jin, F.: Third Language acquisition of Norwegian Objects. In Leung, Y.I.: 『Third language acquisition and universal grammar』. Multilingual Matters, Clevedon 2009.
- Jordà, S.: 『Third Language Learners. Pragmatic Production and Awareness』. Multilingual Matters, Clevedon 2005.
- Kroll, J.F. & Stewart, E.: Category interference in translation and picture naming: Evidence for asymmetric connections between bilingual memory representation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1994, 149-174.
- Llama, R., Cardoso, W., & Collins, L.: The roles of typology and L2 status in

- the acquisition of L3 phonology: The influence of previously learnt languages on L3 speech production. In A.S. Rauber, M.A. Watkins, & B.O. Baptista (Eds.): *Proceedings of the Fif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Acquisition of Second Language Speech*. Federal University of Santa Catarina, Florianópolis Brazil 2007, 313-323.
- Llisterri, J., & Poch-Olivé, D.: Phonetic interference in bilingual's learning of a third language. In *Proceedings of the XI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honetic Sciences*. Academy of Sciences of the Estonian SSR, Tallinn 1987, 134-147.
- McLaughin J., Osterhout, L. & Albert K.: Neural correlates of second language word learning: minimal instruction produces rapid change, *Nature neuroscience* 7, 2004, 703-704.
- Muñoz, C.: Bilingualism and trilingualism in school students in Catalonia. In J. Cenoz & U. Jessner (Eds.): 『English in Europe: The acquisition of a third language』. Multilingual Matters, Clevedon 2000.
- Pyun, K.: A model of interlanguage analysis: The case of Swedish by Korean speakers. In B. Hufeisen and R. Fouser (eds.): 『Introductory Readings in L3 (pp. 55-70)』. Stauffenburg Verlag, Tübingen 2005.
- Ringbom, H.: 『Role of the first language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Multilingual Matters, Clevedon 1987.
- Rothman, J. & Halloran, B.: Formal Linguistic Approaches to L3/Ln Acquisition: A Focus on Morphosyntactic Transfer in Adult Multilingualism.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3, 2013, 51-67.
- Rothman, J., Cabrelli Amaro, J. & De Bot, K.: Third language acquisition. In J. Herschensohn & M. Young-Scholten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13, 372-393.
- Rothman, J.: On the typological economy of syntactic transfer: Word order and relative clause attachment preference in L3 Brazilian Portugues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48, 2010, 245-273.

- Sanz, C: Bilingual education enhances third language acquisition: Evidence from Catalonia. *Applied Psycholinguistics* 21, 2000, 23-44.
- Saville-Troike, M.: 『Introduc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2006.
- Tokowicz, N., & MacWhinney, B.: Implicit and explicit measures of sensitivity to violations in second language grammar: An event-related potential investiga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7, 2005, 173-204.
- Tremblay, M.C.: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third language acquisition: The role of L2 proficiency and L2 exposure. *CLO/OPL* 34, 2006, 109-119.
- Tremblay, M.C.: L2 Influence on L3 Pronunciation: Native-like VOT in the L3 Japanese of English-French Bilinguals. Paper presented at The L3 Phonology Workshop, Freiburg Germany, 2007.
- Wei, L.: The multilingual mental lexicon and lemma transfer in third language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3(2), 2006, 88-104.
- Williams, S. & Hammarberg, B.: Language switches in L3 production: Implication for a polyglot Speaking Model. *Applied Linguistics* 19, 1998, 295-333.
- Wrembel M.: L2-accented speech in L3 prod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7:1, 2010, 75-90.

Zusammenfassung

## Der Drittspracherwerb -Ein Überblick über die Forschung

Lee, Sung-Eun (Seoul National Uni)

In der bisherigen Fremdsprachenforschung wird meistens der Zweitspracherwerb behandelt. Man hat sich dagegen mit dem Drittspracherwerb nur wenig beschäftigt, der nach dem Erst- und Zweitspracherwerb erfolgt. Der Drittspracherwerb wird jedoch allmählich zum alltäglichen Phänomen, weil man weltweit außer der Muttersprache und einer Fremdsprache, überwiegend Englisch, noch eine andere Fremdsprache erwirbt. Deswegen wird sich der Bedarf an Forschung über den Drittspracherwerb erhöhen. Die vorliegende Arbeit versucht, einen Überblick über die Forschung zum Drittspracherwerb zu geben, um auf diese Weise eine theoretische Grundlage für zukünftige Studien im Rahmen der deutschen Sprachwissenschaft zu schaffen.

In diesem Überblick befasse ich mich mit dem Drittspracherwerb auf drei Ebenen - der phonologischen, der lexikalischen und der syntaktischen Ebene. Zuerst werde ich in Kapitel 2 die Einflussfaktoren erklären, die in der Drittspracheforschung berücksichtigt werden sollen.

In Kapitel 3 beschäftige ich mich mit dem Drittspracherwerb auf der phonologischen Ebene. Die Befunde der bisherigen Studien zeigen, dass das zweitsprachliche Vorwissen die phonologische Verarbeitung der Drittsprache beeinflusst, während das muttersprachliche Wissen wenig einbezogen wird. Festgestellt wurde damit ein engerer Zusammenhang zwischen dem Vorwissen der Zweitsprache und dem phonologischen Drittspracherwerb.

In Kapitel 4 wird der Drittspracherwerb auf der lexikalischen Ebene

thematisiert. In aktuellen Studien wurde festgestellt, dass das Vorwissen der Zweitsprache Einfluss auf den lexikalischen Drittspracherwerb nimmt, ebenso wie auf den phonologischen Drittspracherwerb. Hierbei werden die Befunde der bisherigen Studien im Hinblick auf das RHM(,Revised Hierarchical Model') analysiert.

In Kapitel 5 wird der Drittspracherwerb auf der syntaktischen Ebene behandelt. Anders als auf der phonologischen und der lexikalischen Ebene des Drittspracherwerbs gibt es dabei unterschiedliche Sichtweisen, etwa die ,L1 transfer'-Theorie, die ,L2 state factor'-Theorie, das ,CEM (Cumulative Enhancement Model for Language)' und das ,TPM(Typological Primacy Model)'. In diesem Kapitel werden die verschiedenen Studien vorgestellt, die jeden dieser Gesichtspunkte vertreten.

In jedem Kapitel werden auch die Probleme der bisherigen Drittspracherwerbs-Forschung erörtert, die vor allem die Methodik betreffen, mit der man die drittsprachliche Verarbeitung beobachtet hat. Im Kapitel 6 werden mögliche neue Methoden vorgestellt, die die methodischen Einschränkungen überwinden und damit eine präzisere Erforschung des Drittspracherwerbs ermöglichen können. Dazu wird die Forschungsrichtung der zukünftigen Arbeiten dargestellt.

주제어: 제3언어 습득, 음운 습득, 어휘 습득, 통사 습득, 언어 처리  
모델

Schlüsselbegriffe: Drittspracherwerb, Phonogischer Spracherwerb,  
Lexikalischer Spracherwerb, Syntaktischer  
Spracherwerb, Sprachverarbeitungsmodell

필자 E-Mail: cristlo5@snu.ac.kr

논문투고일: 2014. 10. 19, 논문심사일: 2014. 11. 16, 게재확정일: 2014. 11. 24.